

제2강 : 공자(孔子)의 문제의식, '예(禮)'

○子謂子夏曰：“女爲君子儒，無爲小人儒。”(『論語』「雍也」)

【해석】 공자(孔子)께서 자하(子夏)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군자(君子)스러운 유(儒)가 되어야 하며, 소인(小人)스러운 유(儒)가 되지 말아야 한다.”(『논어』「용야」)

○孔子曰，“天下有道，則禮樂征伐自天子出，天下無道，則禮樂征伐自諸侯出。自諸侯出，蓋十世希不失矣，自大夫出，五世希不失矣，陪臣執國命，三世希不失矣。”(『論語』「季氏」)

【해석】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天下)에 도(道)가 있으면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이 천자(天子)로부터 나오고, 천하(天下)에 도(道)가 없으면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이 제후(諸侯)로부터 나온다. 제후로부터 나오면 10세(世) 안에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요,大夫(大夫)로부터 나오면 5세(世) 안에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며, 배신(陪臣)이 국명(國命)을 잡으면 3세(世) 안에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논어』「계씨」)

○孔子謂季氏，“八佾舞於庭，是可忍也，孰不可忍也？”(『論語』「八佾」)

【해석】 공자(孔子)께서 계씨(季氏)를 두고 말씀하셨다. “팔일(八佞)을 제 집 뜰에서 춤추게 하였으니, 이를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차마 못하겠는가?”(『논어』 「팔일」)

○三家者以雍徹.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論語』 「八佞」)

【해석】 삼가(三家)가 제 집 제사에서 「옹(雍)」¹을 부르며 철상을 하였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제사를 돕는 이는 제후(諸侯)들이요, 천하(天子)께서는 경건하시다’라는 시편을 어찌하여 삼가(三家)의 당(堂)에서 취하는가?”(『논어』 「팔일」)

○林放問禮之本. 子曰, “大哉問! 禮, 與其奢也寧儉, 喪, 與其易也寧戚.”(『論語』 「八佞」)

【해석】 임방(林放)이 예(禮)의 근본에 대해 묻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위대하다 물음이어! 예(禮)란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박해야 하며, 상(喪)이란 세련되기보다는 차라리 슬퍼야 한다.”(『논어』 「팔일」)

○季氏旅於泰山. 子謂冉有曰, “女弗能救與?” 對曰, “不能.” 子曰, “嗚呼! 曾謂泰山不如林放乎?”(『論語』 「八佞」)

¹ 『詩經』 「周頌」의 「雝」편을 가리킴.

【해석】 계씨(季氏)가 태산(泰山)에 여(旅)제사를 지내자, 공자(孔子)께서 염유(冉有)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능히 구제할 수 없겠느냐?” (염유가) 대답했다. “할 수 없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호라! 어찌 태산이 임방(林放)만 못하겠느냐?”(『논어』「팔일」)

○子曰, “君子義以爲質, 禮以行之.”(『論語』「衛靈公」)

【해석】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의(義)를 바탕으로 삼고, 예(禮)로 이를 이행한다.”(『논어』「위령공」)

○子曰,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論語』「里仁」)

【해석】

○子曰, “放於利而行, 多怨.”(『論語』「里仁」)

【해석】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이로움(利)에 의거해 행동하면 원망이 많을 것이다.”(『논어』「이인」)

○“見利思義”(『論語』「憲問」) ; “見得思義.”(『論語』「季氏」)

【해석】 “이로움(利)을 보거든 의로움(義)을 생각하라.”(『논어』「헌문」)

“얻을 것(得)을 보거든 의로움(義)을 생각하라.”(『논어』「계씨」)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論語』「里仁」)

【해석】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천하(天下)에서 꼭 그래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꼭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없으며, 의(義)와 함께할 뿐이다.”(『논어』「이인」)

○子曰, “禮云禮云, 玉帛云乎哉? 樂云樂云, 鐘鼓云乎哉?”(『論語』「陽貨」)

【해석】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예(禮)에 대해 말들 하지만, 그것이 옥(玉)이나 비단(帛)을 이름이겠는가? 악(樂)에 대해 말들 하지만, 그것이 종(鐘)이나 북(鼓)를 이름이겠는가?”(『논어』「양화」)

○子曰, “麻冕, 禮也, 今也純, 儉, 吾從衆. 拜下, 禮也, 今拜乎上, 泰也. 雖違衆, 吾從下.”(『論語』「子罕」)

【해석】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麻)로 면(冕)을 만드는 것이 예(禮)이지만, 오늘날에는 실(純)로 만들고 있다. 검박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겠다.² 당하(堂下)에서 절하는 것이 예(禮)이지만, 오늘날에는 당상(堂上)에서 절을 한다. 거만하기 때문에 비록 여러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위배되더라도 나는 당하에서 하겠다.”(『논어』「자한」)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顏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論語』「顏淵」)

【해석】 안연(顏淵)이 인(仁)에 대해 물었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禮)를 회복한다면 인(仁)하다 할 것이다. 어느 날 자기를 이기고 예(禮)를 회복한다면 천하(天下)가 인(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仁)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말미암지 남에게 말미암겠느냐?” 안연이 말했다. “그 세목을 여쭙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논어』「안연」)

² 冕은 원래 30升의 麻布로 제작되었는데,(『論語注疏』:【注】孔曰, “冕, 緇布冠也, 古者績麻三十升布, 以爲之.”) 이때 升은 80울[縷]을 가리킨다.(『儀禮』「喪服」: “冠六升, 外畢.”【鄭玄注】“布八十縷爲升.”) 그렇다면 원래의 禮대로 하자면 2,400울로 짠 麻布로 冕을 제작해야 한다. 그러나 孔子 당시에는 이를 麻가 아닌 純(=絲)으로 제작하고 있었다.

○顏淵問爲邦. 子曰,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樂則韶舞.”(『論語』「衛靈公」)

【해석】 안연(顏淵)이 나라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하(夏)나라의 시(時)를 시행하고, 은(殷)나라의 수레(輅)를 타고, 주(周)나라의 면류관(冕)을 쓰고, 악(樂)은 소무(韶舞: 순임금의 음악)를 사용하라.”(『논어』「위령공」)

○顏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孟子』「滕文公上」)

【해석】 안연(顏淵)이 말했다. “순(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을 것이다.”(『맹자』「등문공상」)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人.”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論語』「憲問」)

【해석】 자로(子路)가 군자(君子)에 대해 물었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공경함(敬)으로 자기를 닦는다.” (자로가)말했다. “이와 같을 뿐입니까?” (공자께서)말씀하셨다. “자기를 닦아 타인을 편안하게 한다.” (자로가)말했다. “이와 같을 뿐입니까?” (공자께서)말씀하셨다. “자기를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자기를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

는 것은 요(堯)·순(舜)께서도 부족하다고 여기셨다.”(『논어』「현문」)

○子曰, “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論語』「述而」)

【해석】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하도다, 나의 쇠약해짐이여! 오래로다, 내 더 이상 꿈에 주공(周公)을 뵈지 못함이여!”

○“世衰道微, 邪說暴行有作, 臣弑其君者有之, 子弑其父者有之. 孔子懼, 作『春秋』. 『春秋』, 天子之事也, 是故孔子曰, ‘知我者其惟『春秋』乎! 罪我者其惟『春秋』乎!’ ... 孔子成『春秋』, 而亂臣賊子懼.”(『孟子』「滕文公下」)

【해석】 세상이 쇠하고 도(道)가 미약해지자, 사특한 말과 포악한 짓들이 일어났다.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자, 공자(孔子)께서 두려워하시어 『춘추(春秋)』를 지으셨다. 『춘추』는 천자(天子)의 일이다. 그래서 공자는 “나를 알아주는 것도 『춘추』 때문일 것이고, 나를 죄주는 것도 『춘추』 때문일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 공자께서 『춘추』를 완성하시자,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맹자』「등문공하」)

○“『春秋』者, 禮義之大宗也.”(『史記』「太史公自序」)

뽑아 읽는 『논어』 강독(2) 한재훈

【해석】 “『춘추(春秋)』는 예의(禮義)의 대종(大宗)이다.”(『사기』「태사공자서」)